

## 2008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② 2.① 3.③ 4.② 5.② 6.④ 7.⑤ 8.⑤ 9.④ 10.②  
11.③ 12.④ 13.② 14.④ 15.④ 16.① 17.⑤ 18.① 19.③ 20.②  
21.④ 22.③ 23.③ 24.④ 25.④ 26.⑤ 27.⑤ 28.③ 29.③ 30.①  
31.⑤ 32.② 33.② 34.③ 35.① 36.⑤ 37.① 38.② 39.② 40.②  
41.④ 42.① 43.⑤ 44.④ 45.① 46.① 47.③ 48.① 49.⑤ 50.⑤

[1-5] 듣기

### 1. 이제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난히 맑은 어느 가을날이었죠. 나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한적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죽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어오고 나뭇잎들은 햇살 속에서 하늘거렸죠.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모퉁이를 돌아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길 양쪽이 화재 때문에 검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차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 정말 끔찍하네.”

그러자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지만, 꼭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숲 속의 나무 밑에는 그동안 자랄 기회가 없었던 씨앗들이 있어요. 다시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린다면 새싹들이 돌아날 거예요. 그러면 숲은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쁜 일로만 보이는 게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 부모님을 여윈 일, 그것들은 모두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그런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몇 해가 흐른 뒤에 알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그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않았나요?

#### 1. 비판적 사고(발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정답해설 : 강연 내용은 강연자가 구체적 체험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에 관한 것이

다. 강연자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산불로 인해 숲이 타버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 모습을 보고 끔찍하다고 여겼지만, 강연자의 아내는 큰 나무들이 타버림으로 인해 오히려 씨앗들이 자라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자는 아내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강연자가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강연자는 단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인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연자는 시커멓게 타버린 숲을 보고 끔찍하다고 여겼지만, 그의 아내는 그 안에서 씨앗이 자라날 기회를 발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강연자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중들은 이 강연을 듣고 ‘가족’이 주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④ 강연자는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 ‘줄지어선 나무’, ‘검은 잿더미로 변한 숲’ 등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인용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현장감을 주려고 하였다. ⑤ 강연자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 부모님을 여읜 일과 관련된 실패와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 아픈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후에 그 일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았다고 하고 있다.

## 2. 이제 표어 심사평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에서 초보 운전 차량의 뒤 유리창에 붙일 표어를 공모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등상. 정명수 회원님입니다. 유명한 시를 패러디했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두가 배려해 주고, 보살피 줄 때 병아리가 장닭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2등상으로 민다영 회원님입니다. 온통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이지만 여유를 갖고 살자는 내용입니다. 표어처럼 회원님의 마음씨도 아름답겠지요? 이제 대망의 1등상, 영예의 1등상은……. 어라, 우리 회원님 중에 어린 학생이 있었나요? 면허증이 있어야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애교스런 글을 앞에 두고, 누가 난폭 운전을 할까요? 어린 학생을 가장한 박설아 회원님이 1등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

이 밖에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응모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도 옛날에는 나 같았다’ 하고 울챙이와 개구리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글은 좋았지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벌하게 겁을 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붙였다가는 뒤차에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오히

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등외로 했습니다. 응모해 주신 여러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사회자는 공모된 표어 중 수상작 세 점에 대한 심사평과 아울러 등위에 들지 못한 표어 두 점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지에 제시된 다섯 점의 표어들 중 언급되지 않은 표어를 찾아야 한다. ①에 제시된 표어는 사회자가 심사평으로 소개한 사항 중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참신성이 떨어지는 표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자의 심사평에서는 구체적으로 ‘올챙이와 개구리’라는 표어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평의 대상이 된 표어로 보기 힘들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영금영금 거북이 우리 아빠’라는 내용이 1등상으로 발표된 어린 학생을 가장한 회원의 표어가 가진 성격과 일치한다. ③ 자동차를 ‘밟으면 함께 터지는 폭탄’이라고 표현한 내용이므로 순위에 들지 못했던 표어에 대한 심사평 중 살벌하게 겁을 주어 뒤차를 자극할 수 있는 표어로 볼 수 있다. ④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구를 패러디한 형식을 갖고 있으므로 3등상으로 발표된 표어로 볼 수 있다. ⑤ ‘천천히 달리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는 여유를 갖고 살자는 내용이므로 심사평 중 2등상을 수상한 표어의 성격과 일치한다.

## 3.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주의의 전망과 미래 사회』를 저술하신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문화주의가 뭐죠?

교수(남) : 네, 오늘날엔 한 사회 내부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론을 말합니다.

기자 : 그러면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수 :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 말씀을 들으니, 다문화주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네요.

교수 : 네,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실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국가를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이념 국가라고 여기는 경우엔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반감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 간에 의견이 저마다 다릅니다.

기자 :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시대에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교수 : 소수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은,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하겠지요.

기자 :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실현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반감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반감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세 번째 교수의 말에서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각 문화 집단 간의 경제적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 4~5. 이번에는 협상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주변 상점들 단체 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야. 어제 애들이 추천했던 가게로 가 보자.

여학생 : 이왕이면 디자인 예쁘고, 질 좋은 걸로 해야지.

(가게 문을 열 때 종소리 들림)

아저씨 : 어서 오세요.

남학생 :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우리 학교 체육 대회라서요. 단체 티를 맞추려고요.

아저씨 : 그래, 잠깐 기다려 봐라. 여기 견본 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보렴.

여학생 : 와, 종류가 참 많네요. 근데 요즘 어느 게 잘 나가요?

아저씨 : 이걸 값이 싸서 부담은 없는데, 합성 섬유라서 촉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걸 가볍고 땀 흡수도 잘 돼서, 요즘 단체 티로 많이 나가.

남학생 :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아저씨 : 그리 안 비싸. 만 원이야.

여학생 : 너무 비싸요. 저희도 품질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6천 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 많이 사면 모르지만, 몇 장 사는데 그 가격에 주기는 힘들지. 학생들이니까 내가 9천 원까지는 깎아 주지.

남학생 : 저희 두 반만 해도 70장이 넘는 걸요. 또 다른 반 애들도 여기 디자인이 예쁘다고 가격만 적당하다면 여기서 사겠대요. 가서 얘기 잘 할게요. 그러니까 6천 원에 해 주세요.

아저씨 : 그래도 6천 원에는 힘들지.

남학생 : 그럼 옷에 학급 로고를 새겨 주시면, 7천 원에 살게요.

아저씨 : 로고라…….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음, 로고를 그냥 해 주는 대신 9천 원에 하지. 어때?

여학생 : 어우, 그래도 비싸요. 아저씨, 체육 대회 때 쓸 모자도 여기서 단체로 살 테니까 조금 더 깎아 주세요. 네?

아저씨 : 좋아. 그러면 8천 원에 하자. 대신 다른 애들한테도 말 잘해 줘야 돼.

남학생 :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겠죠?

아저씨 : 그럼. 이제 계약서를 적어 볼까? 8천 원에 학급 로고 새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됐지?

#### 4. 사실적 사고(대화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들려주는 내용은 단체 티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가게에 가기 전에서부터 가게 안에서 주인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다. 문제지에 제시된 협상의 과정을 인지한 후에 대화를 통해 그 과정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학생들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문제지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복잡한 사고력이 요구되어 난이도가 높다. 학생들은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위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라든지 최대 양보선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남학생의 첫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단체 티를 맞추기 위해 주변 가게의 가격 수준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쟁점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③학생들은 가게 주인과 대화하며 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상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④로고를 새기는 문제, 모자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가격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양보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

을 벌인다고 볼 수 있다. ⑤처음에는 만 원으로 제시된 가격을, 로고를 새겨서 8천 원에 구입하기로 조정한 후, 여기에 대해 만족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5. 비판적 사고(말하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학생들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 이 가게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아이들에게 가서도 선전하겠다는 것, 모자도 단체로 한꺼번에 주문하겠다는 것 등 가게 주인이 선호할 만한 제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때마다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 주인의 가격에 대해 주인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제안들을 하나씩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안을 내놓고 주인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다. ③ 상점 주인과 우호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싼 값에 질 좋은 단체 티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④ 다른 상점들의 시세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⑤ 협상 기한은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무리없이 제시되고 수용되었다. 기한의 촉박함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 [6-12] 쓰기, 어휘·어법

#### 6. 추론적 사고(조건을 고려한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으로 제시된 ‘착안점 → 문제 상황 설정 → 주제 구체화’의 과정에 따라 정보들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착안점으로 주어진 그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며,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 내용은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 넷째 줄의 경우 역시 학교의 게시판에 붙은 지시 사항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수동적 삶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④에서 ㉠에 들어갈 말로 제시된 것은 ‘세상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삶의 태도를 수동적 삶의 태도를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에는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만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칠판을 지우는 그림과 정보를 잊어버리기 쉬운 현대인들의 특성을 연결시킨 것은 타당성이 있다. ② 그림으로 제시된 창문은 안과 밖이 잘 보이면서도 바깥의 소리는 차단하는 작용을 하므로, 서로 마주보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③ 일정이 뻑뻑하게 들어차 있는 시간

표는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와 적절하게 연결된다. ⑤ 쓸데없는 물건이 넘쳐나는 쓰레기통의 모습으로부터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져서 버릴 불필요한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소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 7. 추론적 사고 (자료 해석의 타당성 평가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가)에 제시된 그래프 자료는 한국·중국·일본의 가족 관계와 관련된 6가지 내용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나)에 제시된 도표 자료는 한국·중국·일본의 가족 친밀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 방안 중 ⑤는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2.90으로 제시된 일본인데, (가) 그래프를 보면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로 볼 때에는 중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가족 수는 2.38로 낮지만 배우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로 평가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와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를 보면 가족 가치관에 관한 한국의 그래프 유형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② (가)의 ‘가족 내의 위계질서’를 보면 세 나라 모두 0~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도표에서 일본은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는 2.90으로 가장 많지만 친밀도를 보면 63%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④ (나)에 따르면 일본은 가족 친밀도는 세 나라 중 가장 낮지만 (가)를 보면 일본이 ‘가족의 단결’을 가장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추론적 사고 (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 그림 자료 안의 ‘공지사향’에는 세 가지의 글쓰기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첫머리에 넣어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유를 다음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며, 셋째는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쓰라는 것이다. 답지로 제시된 내용 중 ⑤에서는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쓰게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글을 허용했을 경우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공지사향’을 통해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활용한 글쓰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시의 성공 사례를 제안의 이유로 제시하는 과정까지는 유사하다. 그러나 지역 특산품 홍보에 대한 것은 예상되는 결과라기보다 세부적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교통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한 첫 문장과 등곳길의 안전의 중요하다는 둘째 문장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요구로 제시되고 있다. ③ 체육공원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먼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둘째 문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옆의 공터에 만들어 달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④ 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의견 뒤에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현재의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제시되었다.

#### 9. 비판적 사고 (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추가된 자료에 따라 제시된 개요를 고쳐쓰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는 황사의 피해에 관련된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먼저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내용, 다음으로 황사가 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황사를 막기 위한 중국, 몽골 정부와의 국가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수정한 방안 중 ④는 적절하지 않다. IV의 2에 제시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 기술 개발’은 미세 먼지 오염 감소 대책으로 타당한 것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한 ‘미세 먼지 예·경보제 시행 확대’는 미세 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의미가 있을 뿐 오염 자체를 감소시킬 수는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개요의 I에 제시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미세 먼지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는 전체 논지와 <보기>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범위가 넓으므로 타당한 수정 방안이다. ② II의 1과 2는 각각 호흡기 질환, 심장 혈관계 질병 등 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되고 있으므로 묶는 것이 적절하며, <보기>에 황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II의 하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황사 역시 미세 먼지의 일종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황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 정부 간에 황사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IV의 미세 먼지 오염 감소 대책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

정답해설 : 우주에서 우주인이 운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가)는 고쳐쓰기 이전의 글이고 (나)는 (가)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표현상 잘못된 부분을 고쳐쓴 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글을 비교하여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추리해야 한다. 이렇게 두 글을 비교할 때 (가)에서 ②에 제시된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이란 ‘~되어졌다’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셋째 문장은 분량으로 볼 때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 (나)에

서는 이 문장을 둘로 나누어 주고 있으므로 고쳐쓰기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첫 문장에서 몸을 고정시키는 장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서 ‘운동 기기에’라는 부사어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셋째 문장을 보면 (가)에 나와 있지 않던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첫 문장에 나온 ‘고착’은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들러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에서는 이를 ‘고정’으로 바꾸었으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11. 어휘·어법(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는 세 가지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데, ‘쇠고기’와 ‘소고기’는 두 어휘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라는 사실, ‘쇠고기’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실, ‘돼지고기’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실이다. <보기>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관한 언급도 있는데, 관형격 조사란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사’이다. 즉 앞의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 중 ③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다. 구조로 볼 때 쇠고기는 ‘쇼+의+고기’로 ‘명사+관형격 조사+명사’의 구조이며, 돼지고기 역시 ‘돌+의+고기’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쇠고기’는 ‘쇼+의+고기’로 형성되었는데, ‘의’는 현대어로 ‘의’이므로 ‘소의 고기’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쇠고기’는 명사인 ‘쇼’, 조사인 ‘의’, 명사인 ‘고기’로 형성되었으므로 세 단어가 결합되어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는 ‘소의 고기’를 뜻하는 말이지만, ‘소고기’는 동물 이름 ‘소’에 바로 ‘고기’를 붙여서 만든 단어라고 할 수 있다. ⑤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고려할 때, ‘명사+관형격 조사+명사’의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면 ‘돌+의+고기’, 즉 ‘돌지고기’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 12. 어휘·어법(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 1>은 ‘-마는’과 ‘-만은’의 문법적 성질 차이를 밝힌 것이고, <보기 2>는 ‘-마는’과 ‘-만은’을 실제 문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보기 1>을 통해 ‘-마는’의 경우 종결어미 뒤에 붙으며, ‘-만은’은 어미, 체언, 조사에 다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 2>에 적용했을 때 빈 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경우는 ‘-마는’의 앞에 종결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문법에서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동사에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그러므로 <보기2>의 ㉠ ~ ㉣ 중 그 앞에 종결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된다. ㉡의 경우, ‘오늘은 그냥 간다’의 ‘간다’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니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마는’을 넣을 수 있다. 또 ㉣의 ‘되겠느냐’ 역시 ‘-느냐’라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 ‘-마는’을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는’이 들어갈 것은 ㉡와 ㉣라고 할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의 경우, ‘가서’의 ‘-서’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므로 ‘-마는’을 넣을 수 없다. ㉢ ㉢의 경우, ‘맺힌 가지’의 ‘가지’는 명사이므로, ‘-마는’이 아니라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3-18] 시가복합[현대시 + 고전시]

(가) 김소월, ‘나의 집’

작품해설 : 이 시에는 소월의 시에서 주로 보이는 삶에 대한 비애나 이별의 한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짓겠다는 의지와 그 집에서 임을 기다리는 희망이 드러나고 있다. 화자는 떨어져 나가 앓은 산기슭이나 물가 뒤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큰길까지 내가며 집을 짓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길손을 바라보며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세계를 새 터에 건설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터가 아닌 새로운 터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길손’에 대한 배려이고 이는 곧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대한 강한 집념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기다리는 그대는 연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으로도 볼 수 있기에 일제 하에서 조국 광복의 기원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이 무엇이든 이 작품에는 화자의 기다림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주제] 임을 기다리는 마음

(나) 윤동주, ‘길’

작품해설 : 이 시에는 윤동주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듯이 식민지 지식인의 부끄러움과 자아성찰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자아성찰의 공간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길이다. 화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자 앞의 길은 돌이 연달아 있으며, 담은 굳게 닫혀 있으며 풀 한 포기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은 험난하고 고달픈 화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화자는 절망하지 않고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잃은 것을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 이는 끊임 없는 자아 성찰과 수련을 통해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내면적 결의, 본질적 자아 회복에의 희구

(다) 월명사, ‘제망매가’

작품해설 : 이 시는 향가 중에서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누이의 죽음을 이룬 바람에 떨어진 잎으로 표현한 비유가 특히 뛰어나며, 누이의 죽음에 따른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화자의 신앙심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요절한 누이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노래하였고, 둘째 단락에서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 애절한 혈육의 정을 구체화시켰으며, 마지막 단락에서는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인 숭고함으로 승화시키는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추모함

### 13.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세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그에 대한 화자 나름의 대응 방식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새로운 터에 집을 짓고 길을 낸 후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나)의 화자는 험난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미타찰에서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고 슬픔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대응시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④ 세 작품에서 화자의 지향점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서 ‘길이 돌담을 끼고 있다는 것’, ‘풀 한 포기 없는 길’ 등의 내용은 현실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속성에 모순되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에 제시된 시간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저녁 무렵과 아침의 시간이 표현되어 있다. [B]에서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역설적인 표현은 아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며 흘러가기 때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아침의 시간은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표현에서 시간의 지속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③ [B]에서 길이라는 공간과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이 결합되어 형상화되었다. ⑤ [A]에서 아침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첫 시작을 의미하며, [B]에서의 시간은 굳게 닫은 쇠문이 긴 그림자를 드리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화자의 고뇌가 지속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15.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의 ‘하늘’은 화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화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고 황량하지만, 하늘이 있기에 화자는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의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이상의 공간으로, 화자가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지향하는 곳이기도 하다. [답] ④

16.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가 짓는 ‘집’의 위치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이며, ‘넓은 바다의 물가 뒤’라는 것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터가 아닌 새로운 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신이 지은 ‘집’ 앞에 큰길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현실 상황에 대해 극복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속세를 떠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①

17.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 쓰인 시어들을 살펴볼 때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메기습’의 ‘메’가 산의 옛말로 향토적인 정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속적인 방언으로 향토적 정감을 환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이라는 첫구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에서도 그 뒤의 내용이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며, ‘그대인가고’에서는 ‘그대인가하고’의 음절수를 줄인 것이다. ③ 마지막 행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새벽녘의 이미지를 ‘희게’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8.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비교를 통한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의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에서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떨어진 꽃 역시 꽃이라 하며 이를 쓸지 말라고 한다. 떨어진 꽃은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에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과는 거리가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만들고,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린다. ④ ㉠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 있지만, B에서 ‘나무’는 임이 그리워 병든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영향

을 받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 [19-22] 사회, '위치적 군비 경쟁'

지문해설 :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소모적인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나 경쟁 제약에 효과적인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주제]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과 이로 인한 초래되는 사회 현상 이해

#### 19. 추론적 사고(중심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은 '위치적 외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치적 군비 경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③의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위치적 보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적절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래프와 셀레스의 예로 설명하듯이 위치적 외부성은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고 비슷한 수준을 지닌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하게 된다. ② 사람들은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경쟁자가 지출을 늘리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비용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 ④ 마지막 단락에 위치적 군비 경쟁이 심화되어 비효율성이 증가되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사회적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이 서로에게 별 효과가 없이 소모적인 지출인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20.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해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는 상황은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때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위치적 외부성은 경쟁자들에게 금전, 노력 등 그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선택지에 제

시된 다섯 가지의 사례를 살펴볼 때도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봐야 한다. 즉 비슷한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거두는 성과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②는 프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유명 가수가 공연을 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가수의 출연이 선수들의 이익에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가수와 선수들이 서로 경쟁관계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이 중 한 후보가 사퇴한다는 것은 그 후보의 표가 어떻게 나뉘어 어느 후보에게 가게 되는지에 따라 각 후보의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각 후보들 사이에는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는 셈이다. ③ 도서관의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일찍 도서관에 가서 줄을 서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자리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일찍 도서관에 가서 줄을 서려고 하는 현상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또한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 해 늦게 입학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를 얻어내게 된다면, 이 때 이 학생과 경쟁해야 하는 정상적인 나이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과 경쟁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밀폐된 공간에서 각자가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21.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위치적 군비 경쟁은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모적인 지출을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경쟁을 위해 어떤 투자를 했으나 그 투자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모적인 지출로 끝나버렸을 때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집단 내 경쟁자들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경쟁자들이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지출을 감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돌아오는 효과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출을 늘린다면 그것이 곧 소모적인 지출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위치적 군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단 내 한정되어 있는 이익을 두고 많은 경쟁자들이 경쟁하기 때문이고, 또 경쟁자들 당사자가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위치적 보상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기 때문이다. [답] ④

22. 어휘·어법의 이해(단어의 의미와 용례의 적용)

정답해설 : 본문에 사용된 ㉠와 ㉡의 ‘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는 것이다. 즉 ㉠와 ㉡의 의미와 용례를 각각 고르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의 ‘간’은 ‘경쟁자와 경쟁자 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ㄴ에 해당하고 용례 또한 ‘부부 사이’를 의미하는 ‘내외간’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는 ‘많게든 적게든’이라는 의미이므로 ‘선택의 무차별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옳든지 그르든지’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c의 경우와 유사한 용례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③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보기>의 ㄷ은 ㉠와 ㉡ 둘 다 관련이 없긴 하지만, 용례의 a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23-26] 현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제목처럼 어느 하루 동안에 벌어진 구보 씨의 일과를 서술한 박태원의 중편 소설로서 ‘집을 나섬→돌아다님→귀가’의 노정을 따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구보 씨’는 무기력한 한 지식인(소설가)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차안→다방→거리→경성역 대합실→다방→거리→술집’으로 전전하며 그가 지켜본 일상의 풍경은 1930년대 조선의 세태를 잘 반영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태 묘사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잘 표출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1930년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 사회의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되어 가는 모습 및 그 속에서 도시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 의식이 두서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행위, 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작품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이나 몽타주 기법 등의 모더니즘 소설 기법들은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장면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평소 왕래가 없던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들 만나 당시의 걸작이나 원고료 등 달갑지 않은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주제] 1930년대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사

2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벗을 기다리던 중에 평소 왕래가 없으면서도 아는 체를 하는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들 만나 썩 내키지 않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문을 들어서서 벗과 함께 다방에서 벗어나는 장면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만 놓고 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만, 주인공인 구보 씨의 내면 의식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두서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

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을 통해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작가의 원고료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서술부는 전반적으로 과거형 어미로 진술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문장만큼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대화 부분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통해 등장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처럼 쉽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24.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적 태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사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남들에게 선전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상대방을 자신의 독자 권유원으로 삼으면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난데없이 생각한 자신의 내면 의식에 대해 스스로 유치하다고 여기며 어이없게 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몸에 느낀다는 것은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행동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간신히’라는 부사로 볼 때, 구보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창의적 사고(시점을 바꿔 서술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가)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이므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①, ②는 제외하고 답을 골라야 한다. (가)의 시점은 전지적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의 심리를 추정하여 서술하는 시점이다. 반면 (나)의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직접 ‘사내’의 심리와 ‘구보’의 심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여, 서술자가 관찰만 하고 있을 뿐 ‘사내’의 내면 심리를 모르고 있는 듯이 서술한 ③은 (나)의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내’와 ‘구보’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서술한 ④가 (나)의 시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인칭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정함으로써 서술자

가 ‘사내’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원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최 군’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최 군’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는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대화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사내’는 예술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자기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② 이 글에서 ‘최 군’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에 대해 걸작이라고 생각하며 구보의 동의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③ 이 글에서 ‘구보’는 ‘최 군’이 말하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③처럼 말하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최 군’이 원고료에 관심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④처럼 그림의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최 군’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27-29] 과학,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원리와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현대 의학에서 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와 그 작동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다. 일반적인 소리와 대비하여 초음파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초음파가 ‘압전 소자’를 비롯한 여러 장치와 결합하여 인체와 여타 대상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결론부에서는 초음파 진단 장치가 초음파를 활용하는 동물들의 능력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의 패거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제]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원리와 과정

27.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추론)

정답해설 : 둘째 문단에서 초음파가 인체 진단 기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유가 그것의 ‘짧은 파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⑤에서 성능 좋은 장치가 파장이 긴 음파를 사용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첫째 문단에서 CT는 인체에 해로운 엑스선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CT가 ‘태아’에게도 해롭다고 추론한 반응은 적절하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돌고래는 박쥐와 더불어 초음파를 발생시켜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넷째 문단에서 인체 부위에 젤리를 발라주면 음파 전달 과정에서의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젤리로 인해 음파가 인체의 내부로 잘 전달되는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압전 변환기가 마이크와 같은 기능도 수

행한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품이 압전 소자라고 하였으므로, 마이크에도 압전 소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8. 사실적 사고(정보의 사실적 이해)

정답해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압전 효과’는 압전 소자가 압력을 받았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으로 ‘역압전 효과’는 교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초음파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림>에서는 ‘전기’나 ‘교류 전압’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주파 교류’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주목하여 볼 때, 전기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는 ‘고주파 교류 발생’의 단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 다음 두 번째 문장 ‘역으로 높은 ~’에 따르면, ‘초음파 발생’은 ‘역압전 효과’에 대응한다.

29.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상황의 적용)

정답해설 : [A]에서 설명하는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는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통과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음파에 변형이 일어나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음파의 요소와 매질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A]의 원리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③에서 말하는 ‘관에서 나는 소리’는 음파가 관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므로, ‘관’이 음파의 전달·이동 과정에 매질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물속’과 ‘공기’가 소리가 전파되는 매질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얇은 벽과 두꺼운 벽이 소리가 투과하는 매질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⑤ 공기 또는 벽이 소리의 전파 과정에서 매질로 기능하고 있다.

[30-32] 희곡, 황석영 원작, 김석만 · 오인두 각색, ‘한씨연대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50년대 분단된 남과 북을 배경으로 하여 고지식하고 양심적인 한영덕이라는 지식인이 겪게 되는 삶의 기록이다. 중심인물인 한영덕은 김일성 대학의 의사로서 양심적 삶을 살아가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데올로기의 고통스러운 희생양이 된다. 작가는 분단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놓인 인간에 초점을 맞춰, 아무런 죄도 없이 시대 현실에 의해 시달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 삶의 아픔을 제시한다.

[주제] 전쟁으로 인해 전도된 가치관이 개인에게 주는 비극

30.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한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

다며,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한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다고 했다. ③ 강 노인보다 젊은 한영덕이 자신의 관을 짜 달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을 엿볼 수 있다. ④ 한혜자는 아버지가 의사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⑤ 강 노인은 한영덕이 장의사에 처음 찾아왔을 때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3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한혜자는 자신의 아버지 한영덕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과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극중 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이다. 반면에 [B]의 시간은 생전에 한영덕이 살아 있을 때 장의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영덕이 장의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②[A]와 [B]의 극중 시간은 다르며,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A]에서 한혜자는 일방적인 말하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고 있다. 반면에 [B]에서는 강 노인과 한영덕의 대화를 통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④ [A]에서 아버지 한영덕에 대한 한혜자의 기억은 좋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은 [B]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인간 한영덕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는 다른 것이기에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 32. 비판적 사고(연출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첫 부분에서 한영덕은 모시 적삼을 입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관을 들고 등장한다고 했다. 염을 하고 관을 짜는 장면이기에 깔끔한 모시 적삼은 어울리지 않는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강 노인과 한영덕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혜자는 관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④ 한혜자가 말하는 시공간과 강 노인 한영덕이 대화하고 있는 시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무대의 같은 공간에서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퇴장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제시되는 내용으로 보아 어두운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 [33-36] 인문, ‘성품의 탁월함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성품의 탁월함’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탁월한 성

품과 관련된 행위들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게 되어 그런 행동을 더 쉽게 하게 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제] 성품의 탁월함을 습득하는 방법

### 3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 습득에 비유하고 있을 뿐이며, 함축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탁월함을 ‘지성의 탁월함’과 ‘성품의 탁월함’으로 구분하여 논제를 설정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성품의 탁월함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의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④ (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갑돌이와 병식이라는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 짓고 있다.

### 34. 추론적 사고(생략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의 결론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즉, ‘갑돌이’가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라)의 앞 부분에서 ‘갑돌이’ 관련 내용에서 ‘갑돌이’가 아무런 내적인 갈등 없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갑돌이’가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언급은 (라)에서 찾을 수 없다. ② ‘갑돌이’가 옳은 일을 한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며, 주체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라)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④ ‘갑돌이’가 옳은 일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갑돌이’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갑돌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의식했다는 근거를 (라)에서 찾을 수 없다.

### 3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라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행위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보기>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 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비판한다면,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에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옳은 행동을 즐겨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긴 하

지만 <보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도덕적인 행위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보기>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는 ‘본성’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보기>의 내용과 맞지 않다 ⑤ <보기>에서 강조한 것은 ‘이성적 성찰’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36. 어휘·어법(관용적 어휘의 이해와 표현)

정답해설 : ‘인사치레’라는 말에는 ㉠에서 언급한 ‘진실’이라는 의미는 없고, ㉡에서 언급한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실속없이 헛된 말. ㉡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②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 ㉡가 결여되어 있다. ③ 아무 까닭이 없이 트집을 부림. ㉡가 결여되어 있다. ④ 짐짓 어기대는 행동. ㉡가 결여되어 있다.

### [37-39] 과학, ‘심해저 생물의 생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심해저에서 어떻게 해양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물의 신비로운 생존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즉 심해의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온 용출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고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열수구에 살고 있는 관벌레는 독특한 순환계로 인해 자신의 영양체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에게 황화수소를 공급해주고, 이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만한 유기물을 공급해준다. 즉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용들이 있기에 태양에너지가 전혀 미치지 않는 심해에는 해양의 표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온 것이다.

[주제] 심해 열수구에서 생물의 생존과 진화

### 37.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태양 에너지가 미치지 않는 심해저에서 생물이 어떻게 생존하고 진화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해양 표층에서는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 생물체가 유기물을 공급받으며 생존할 수 있지만, 광합성이 불가능한 심해저에서는 어떻게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다. 즉 이 글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해저에도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런 생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해 준다. 지각활동으로 인한 용출수의 분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벌레와 세균의 관계 등이 어우러지면서 심해저에는 신비하게도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심해저 생물종인 관벌레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과의 관계가 드러나 있을 뿐, 심해저 생물들의 먹이 사슬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해양 표층의 생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을 다루고 있을 뿐, 해양 생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열수구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생존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이므로 심해저의 아름다움을 표제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생물학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생물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38. 추론적 사고(대상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지각활동으로 인한 용출수가 흘러나오는 심해저의 열수구 지역에서는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해수에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인 관벌레의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벌레는 자신의 특수기관인 영양체 안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에게 황화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렇게 황화수소를 충분히 공급받은 세균들은 다시 화학 합성을 통해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만한 유기물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관벌레와 세균은 서로의 활동으로 상대방의 생존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 곰치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사는 놀래기는 곰치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있는 썸이다. 곰치의 입장에서는 놀래기가 자신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썸이므로, 이 둘은 서로에게 유익한 점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썸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류의 표피에서 그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 등각류의 생존 방식은 기생이라고 볼 수 있다. 어류에게는 이러한 점이 없이 등각류만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소라고둥 껍데기는 생물체가 아니므로 이는 그 관계를 제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④ 잘피가 다른 동식물에게 베푸는 영향들이 나와 있을 뿐, 다른 동식물에게서 받는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이는 먹이사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생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 39. 추론적 사고(자료의 이해 및 활용)

정답해설 : 이 글은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인 심해저에 어떻게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지각활동에 의한 용출수의 분출에서부터 설명된다. 즉 지각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광물질과 황화수소를 포함한 용출수가 분출되자, 그 황화수소를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순환계 구조를 지닌 관벌레가 생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관벌레는 자신의 특수기관인 영양체 안에 존재하는 세균에 의해 유기물을 공급받고, 다시 이 세균들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들을 공급해주면서 심해저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보기>

에서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관찰한 천문학자들이 유로파의 밝은 얼음 층 밑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지각 활동을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심해저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 때문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다면 심해저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답] ②

[40-42] 언어, '소쉬르의 공시대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시대를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로 본 소쉬르의 언어학적 견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태와 공시대를 동의어로 본 소쉬르의 견해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기술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주제] 소쉬르의 공시대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

40.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정답해설 : 과율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 연구에는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소쉬르는 화자가 발화한 당시의 언어 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본문에 제시된 공시대와 통시대의 개념을 '좁쌀'이라는 단어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공시대는 동시성의 축을 말하고, 통시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말한다. 따라서 '조밭'이 음운 변화를 거쳐 '좁쌀'이 된 것은 통시적 연구(④)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과 중세 때 사용한 '조밭'은 각각 그 당시의 언어 현상에서 바라보는 공시적 연구(①, ⑤)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밭'은 중세 국어에서의 공시대이고, '쌀'은 현대 국어에서의 공시대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② '좁쌀'은 현대 국어의 공시대이므로, '좁쌀'에서의 'ㅂ'이 '밭'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42. 추론적 사고(중심 개념의 비유적 표현)

정답해설 :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소쉬르는 '공시대(㉔)'를 시간의 개입

이 완전히 배제된 ‘정태(㉠)’로 보았다. 언어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느 한 순간만을 보면 정지되어 있는 ‘정태’로 보이지만,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공시태’로서의 개념을 소쉬르는 간과했던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라)에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므로,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되어 버리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악보에 있는 ‘음표’라는 기호를 실현한 것이 ‘소리’이다. ⑤ ‘산’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대상을 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43-46] 고전소설, ‘임진록’

작품해설 : 이 글은 ‘임진왜란’을 역사적 배경으로 민중의 상상력이 가미된 역사 소설이다. ‘사명대사’, ‘이순신’, ‘곽재우’ 등 임진왜란의 영웅들의 행적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으며, ‘경판본’, ‘완판본’, ‘흑룡록’ 등 다양한 판본이 전한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김덕령의 영웅적 행적을 다루고 있다.

[주제] 의병장 김덕룡의 신이한 행적

#### 43.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가등청정이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한 것은 김덕령의 말대로 시행한 후 김덕령이 약속한 시간에 당도하였을 때 일시에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등청정이 수문장을 죽인 것은 김덕령의 진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김덕령이 자취도 없이 들어온 연유를 김덕령의 신이한 능력 때문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가등청정이 김덕령의 능력에 간담이 서늘해진 것은 김덕령의 도술을 본 이후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김덕룡은 순식간에 일본 병사들의 백지를 모조리 거두어 일본 병사들의 죽음을 경고한다. ② ‘거상’은 상중(喪中)에 있음을 말하는데,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공자와 군자, 대부의 거상 기간을 거론하며 김덕령이 마땅히 상중의 도리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이를 소홀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김덕령이 상중에 있다는 점, 그가 가등청정에게 병사들의 목에 종이를 달고 있을 것을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복을 입고 공중에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임을 알 수 있다. ④ 김덕령이 상중인 이유로 가등청정과 싸움에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가등청정의 진에 가서도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바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4.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는 여타의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깝도다’의 경우에서처럼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의 경우에서처럼 상황을 과장되이 묘사하기도 하고 있다. <보기>

에서는 오히려 최척이 혼례를 하고자 하는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가 본문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고 한 ④는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본문에서는 김덕룡이 가등청정을 제압한 반면, <보기>에서는 최척이 의병장의 꾸중으로 자신의 의지를 접고 있다. 본문이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주인공을 비교할 때에도 본문의 주인공이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⑤ 본문에서는 김덕령이 ‘옛날 황석공’에 필적할 만한 도술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그런 도술을 발휘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최척의 인간적 욕구와 객관적 상황의 부조화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 45.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 역사적 인물 김덕령은 출생지가 ‘전라도 광주’이나, 임진록의 가공인물 김덕령은 ‘함경도 곡산’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에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주인공의 출생지가 다르게 되면 다양한 외적 상황에 의해서 독자층이 확대·축소되거나 별다른 영향이 없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은 본문과 제시 자료 어느 쪽에서도 도출되기 어려운 반응이다. [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근력이 삼천 근(3000×0.6kg=1,8톤)을 감당할 만하고, 키가 구 척(9×30.3cm= 약 2.7m)이라 하여 인물의 특성을 과장하였으며, 이렇게 거대한 힘과 체격을 설정함으로써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③ 김덕령의 여러 행적과 그 행적 안의 인과 관계가 크게 단순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은 타당하다. ④ 자료에서는 김덕령이 상중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설에서 출전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국가에 대한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할 수 있다. ⑤ 자료에서는 김덕령이 가등청정과 직접 대면하였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소설에서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된 것은 억눌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6. 어휘 · 어법(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정답해설 : ㉠은 가등청정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김덕령을 진영에 들이게 한 수문장에게 책임을 물어 수문장의 목을 벤 상황이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어는 ‘일벌백계’이며, 이는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상황. ③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갑작스러운 재앙을 이룸. ④ 토끼가 죽으면 그 토끼를 사냥하던 개를 삶아먹는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⑤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47-50] 예술, '예술과 감정의 관계'

지문해설 :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예술의 가치를 옹호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술은 자신이 표현하고픈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본다. 이때 전달되는 감정은 연대감이나 형제애와 같이 질이 좋은 감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콜링우드는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 전달이 오히려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예술의 역할로서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제]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

47. 추론적 사고(이유 및 추론의 근거)

정답해설 : 톨스토이는 예술을 감정 전달의 수단으로 보았으나, 콜링우드는 감정 정리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콜링우드는 일상사에서 느껴지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완성한 시는 그것으로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혼란스러웠던 여러 감정들이 시를 통해 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답] ③

48. 비판적 사고(새로운 관점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예술의 형식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형식적 연관만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예술의 형식적 측면보다 내용적 측면인 감정을 중요하다고 보는 이 글의 관점과 배치된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을 지닌 사람이라면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이 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예술적 형식을 감정의 전달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보기>의 관점은 예술의 형식적 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신적 이념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④ 용솟음치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본 것은 위 글의 관점에 해당하므로 비판적 이해라 볼 수 없다. ⑤ <보기>에서는 형식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9.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예술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은 타인도 공감할 수 있는 질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제시된 답지 중에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⑤)'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전달하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포수의 총에 맞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나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간 ‘새’(㉡),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삼만 리로 떠난 ‘임’(㉢),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기만 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다른 답지들은 주로 순수의 파괴, 상실감, 서글픔 등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 ㉤

50. 어휘·어법의 이해(적절한 단어로 바꿔 쓰기)

정답해설 : ㉤는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의 의미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다’는 의미의 ‘전환(轉換)’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

[오답피하기]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김 ㉢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함 ㉣ 어떤 결과를 가져옴